

여름은 가고 추수는 끝났지만



한인상 장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

지금은 동서로 연결되는 길이 넓게 트여 있고 교통 수단의 발달로 하루 정도면 거의 지구의 어느 곳에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전통이나 문화의 특성 같은 것도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게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동양권에서는 식량하면 밀이나 밀로된 음식보다는 쌀과 밥을 먼저 떠올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네의 이러한 쌀에 대한 관념이나 생활 풍속 때문에 아직도 농사하면 쌀 농사요 풍년하면 쌀이 많이 수확되는 해를 일컫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쌀을 위해서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심으며 더위와 장마 속에서 벼를 가꾸고 돌보던 여름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이른 벼를 심은 곳에서는 쌀을 수확하여 햅쌀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하며 보통 품종의 벼는 지금 황금 들판에서 영글어 고개를 숙인 채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은 음력 절기가 빨라서 지난 팔월에 입추를 지냈고 었그제는 처서였으며 이달에 음력 팔월 대보름인 추석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등 동양의 여러나라에서는 추석을 일년 중 큰 명절로 하고 있으며 햇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날을 즐깁니다.

추수는 물론 직접 들판에서 땀 흘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가꾸며 일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주겠지만 전혀 농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마음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황금 들판과 고개 숙인 벼! 땀흘려 일한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추수에 관한 일들을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잠언에는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잠언 11:18)는

말씀이 있고 갈라디아서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7)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대로 거두는 추수!

그 추수를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비유로 여러 번
언급하셨으며 이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들아, 선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임이라.
그러므로 선을 심으면 선을
보상으로 거두리라.”(교성 6:33)

우리는 이 말일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선행으로 이
세상을 살아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희생하시어 열어 놓으신 구원의
문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말일성도들입니다.

훌륭한 추수를 위해서 씨를 심고
가꾸는 일은 행함입니다. 그 씨를
심는 일과 가꾸는 일을 선행이라고
한다면 그 힘들고 땀흘리는 노력과
수고 때문에 값진 수확을 거두게
된다는 뜻이니,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살피고 참으로 행함의
성도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전을 읽겠다는 생각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만으로
경전이 읽어지지 않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정말 경전을 읽는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거두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며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됨으로써
부딪히는 세상적인 어려움과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다는 생각,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 계명을 지키겠다는
생각, 순결의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
이웃을 위해 선행을 하겠다는 생각!
생각! 생각!

이 생각만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추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작은 일에서 큰일이 생겨나는”
것이므로(교성 64:33 참조)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야고보서 2:
14~17)

형제 자매 여러분!

여름은 지났습니다. 곧 추수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추수도 곧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울부짖으며
“추수는 끝나고 여름이 지났으나
나는 구원받지 못하였도다”(교성 56:
16 참조)라고 하지 않도록 지금
새로운 결심으로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함을 쌓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입니다. □

플로라 스미스

아무센 벤슨

자매 별세

지난 8월 19일,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플로라 스미스
아무센 벤슨 자매의 장례식이
있었다. 벤슨 자매는 8월 14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소재한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벤슨 자매는 유타 주 로간에 있는
유타 주립 농업 대학에 다닐 때에,
당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1926년 9월
10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벤슨 자매는 1901년 7월 1일,
유타 주 로간에서 카일 크리스찬
아무센과 바바라 맥키삭 스미스
아무센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덴마크 출신인 벤슨 자매의
아버지는 미주리 주 세인트
루이스로부터 우마차를 끌고
솔트레이크 시티로 여행해 온
개척자로 유타 주에서 보석상을
했었으나, 플로라가 태어난 지 1년
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플로라는 아버지에게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벤슨 자매는 솔트레이크 시티와
로간 및 캘리포니아에서 초등
교육을 마친 후, 로간에 있던
브리감 영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그후 유타 주립 농업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했다.

벤슨 자매는 하와이 군도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했다.

결혼식 날, 벤슨 자매는 남편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과 함께 솔트레이크 시티를 떠나 당시 남편이 등록한 대학원이 있는 아이오와 주 에임프로 이사했다. 그후 농업 행정관이 된 남편의 직장을 따라 1939년부터 5년간 가족이 워싱턴 디시에서 살았으며, 벤슨 장로가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 밑에서 농무 장관으로 봉사하는 관제로 1953년부터 약 8년 동안 다시 워싱턴 디시에서 살았다.

벤슨 형제는 미국 내각의 각료로 부름받기 10년 전인 1943년에 십이사도 평의회 의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벤슨 자매는 여섯 자녀를 기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편이 교회와 정부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도록 도왔다. 자녀들이 성장한 후, 벤슨 자매는 남편이 전세계 어디를 여행하든 항상 함께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벤슨 장로가 당시 교회의 대관장이었던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의 지시로 전후 유럽에 살고 있는 회원들을 돕는 일을 감독하기 위해 유럽에 가 있는 동안 벤슨 자매는 집에 남아 충실하게 가정과 가족을 보살폈다. 한편으로는 정기적으로 남편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 남편을 도왔으며 또한 남편이 없는 10개월 동안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다.

벤슨 자매가 한번은 자신은 열 두 명의 자녀를 원했으나, “결국은 여섯 명만 갖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다.

벤슨 자매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했다. 그녀는 “자녀를

훈련시키고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자녀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했다.

벤슨 대관장님은 벤슨 자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한 적이 있다. “아내는 자녀들과 같이 놀고 같이 노래하고 같이 울어 주고 같이 공부했으며, 또한 자녀들의 필요 사항 하나 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아내의 큰 신앙에는 그 끝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내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지만, 때때로 문제와 직접 관련된 가족과 함께 특별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모두에게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심어 주고 저에게는 늘 영감을 불러 일으켜 주는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플로라 벤슨 자매는 언젠가 기자들에게 가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다. “저희 여섯 자녀들보다 더 교회와 그 가르침과 또한 서로에게 참되고 충실하며 훌륭한 자녀를 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과 남편이 교회에서 받은 부름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것은 저의 인생입니다.”

미국 정부 각료의 아내라는 힘든 역할도 벤슨 자매를 지치게 하지는 못했다. 언젠가 그녀는 “백악관 및 그밖의 곳에서 하는 사회 활동이 힘들기는 했지만 우리의 표준을 어긴다거나 가족을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했다.

워싱턴 디시에 있는 동안, 벤슨 자매는 가정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에 술이나 흥차, 커피 등을 내놓지 않고, 오락을 위해 카드

놀이를 하는 일이 결코 없는 등의 품위있는 행동으로 워싱턴 사교계에서 명성이 나 있었다. 이 기간에 자매는 올해의 미국 주부로 선정되었다.

교회에서 성장하는 동안, 벤슨 자매는 여러 직책에서 봉사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상호부조회에서 봉사하였고, 와드 청녀 회장 및 스테이크 청녀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했으며 이밖에도 초등학교 교사 및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 벤슨 자매는 브리감 영 대학교로부터 모범 여성 표창을 받았으며 아이다호 주 렉스버그에 있는 릭스 대학교부터는 수훈상을 받았고, 1985년에는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말일성도 여성 대학 위원회로부터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작고한 벤슨 자매의 유족으로는 벤슨 대관장님과 두 아들과 네 딸, 그리고 서른 네 명의 손녀와 친한 명의 증손녀가 있다. □

역원 변경

- 영동 스테이크
신장 지부 지부장: 김영권 형제
(전임자: 최상업 형제)
- 서울 북 스테이크
초대 원당 지부 지부장:
최순호 형제
교회 전화: (0344) 967-9191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주

주 : 본 기사는 1992년 4월 18일자 Time지(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 가운데 하나)에 실린 것을 전문 번역한 것입니다.

유타 주는 물론 선교사들로 인하여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주가 되었으며, 그로 인한 성과도 누리고 있다.

샬리 도넬리
솔트레이크 시티

전설상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만약 유타 주 사람을 고용했다면 그 거대한 탑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언어로 인한 혼란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실제로 완성되었을지도 모른다. 언어 면에서 박식한 유타 사람들은 아마도 꿀벌처럼 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최소한 자신이 속한 국가나 주의 경제 성장을 위해 자신의 언어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기에는 충분하다.

인구 밀도가 매우 낮고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특히 사막과 산과 거칠은 황야가 많은 미국 서부의 전형적인 지역인 유타 주는 세계 문자 언어의 약 90%에 달하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전화 한 통화면 30분 이내에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200만 명에 불과한 주로서는 매우 인상적인 일입니다."라고 그 지역 상공 회의소 소장으로 외국 손님을 자주 접하는 프레드 볼씨는 말한다. 주별로 나누어 볼 때, 유타 주가 언어 면에 있어서 가장 다양한 주이다. 따라서 유타 주는 국제적인

사업 장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또한 유타 주에서는 관광객들이 좀더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고 있다. 파크 시티와 디어벨리에 있는 세계적 수준의 스키장에서는 표시판들을 영어와 일본어로 적어 놓아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주 당국에서는 2002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언어 능력을 하나의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많은 언어를 알고 있는 주 원인으로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본부를 둔 물론 교회, 공식적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교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교회는 수세대에 걸쳐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청년들을(여성들도 있음) 세계 곳곳으로 보내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선교 사업을 해 오고 있다. 선교사들은 지명받은 지역에서 최소한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 지역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물론교의 메시지를 전파한다. 세계적으로 회원이 약 800만 명에 달하는 이 교회에는 44,500명의 선교사가 95개 국가와 26개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사람은 먼저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는데, 이 훈련원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 훈련생들은 학습의 일부로서 하루에 몇 시간씩 집중적인 언어 훈련을 받는데, 이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이 훈련원에서는 아르메니아어와 베트남어 심지어는 에스토니아어, 타히티어, 아이슬란드어와 같은 소수 민족 언어를 포함해서 38개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주로 귀한 선교사나 가까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이 가르치고 있다. 물론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는 총 28,000명 가운데 60%가 넘는 학생들이 광범위한 언어 교육을 받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일부 국제적인 회사들은 이러한 언어의 풍부함 때문에 유타 주에 지사를 열었다. 아틀란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최근 유럽과 아시아 35개 도시에 새로운 항로를 개설한 델타 항공사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국제 예약 센터를 두고 있다. 이곳의 직원들은 힌두어와 스웨덴어를 포함하여 13개의 외국 언어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몇년 전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에서 솔트레이크 시티에 세계 여행자 수표 서비스 센터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솔트레이크 외곽에는 유리 와 시멘트로 건축된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겉에서 보면 일반 현대식 사무실 건물과 다를 바 없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마치 디즈니랜드를 여행하는 듯하다. 바로 이곳이 스몰 월드사로서 1,600명의

직원 가운데 반 이상이 2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모두 합치면 118개 언어를 말한다. “여행자라면 누구라도 알겠지만, 언어를 모를 경우 복잡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들이 상대방에 자신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유타 대학교의 교환원이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학생이기도 한 로나 드래퍼의 말이다.

자기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시작한 회사지만 뛰어난 능력을 통해 범세계적인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되었다. 1980년 브리감 영 대학교가 연구 조사 목적으로 발족한

ALPENT사는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22개의 사무실에 250명 직원을 두고 있으며, 연간 수입이 2천 6백만 달러에 이르는 번역 회사로 성장하였다. 솔트레이크시티가 하이테크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지역으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한 번역 의뢰가 많이 들어 온다. “저는 ALPENT사는 언어 및 문화적으로 의식이 깨어 있으며 또한 컴퓨터에도 두드러진 매우 독특한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ALPENT 회사의 토마스 실 사장은 말한다. 이 회사의 고객 가운데는 애플 컴퓨터사, 브리티시 페트롤륨, 나토, 시멘트 등이 있다. 최근 미 육군에서는 ALPENT에 사우디 군을 위해 브래들리 화이팅 장갑차를 아랍에 배치하는 것에 관한 3,200쪽에 달하는 자료를 번역할 것을 의뢰했다.

브뤼셀에서 도쿄에 이르기까지 지부를 두고 있는 유타 주 경제

발전 연구 회사의 직원들은 유타 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 60%가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유타 주 당국은 언어 능력이 앞으로 해외로 진출하게 될 공장 및 회사에 매우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예를 들면, 대만에 본부를 둔 컴퓨터 제조 회사인 콤펙크 매뉴팩처링은 작년에 최초의 해외 공장을 세울 곳으로 유타 주를 선택했다. 콤펙크 회사 경영진들은 유타 주 주민들이 맨더린어를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대만 사람들의 관습과 문화를 이해한다는 데 마음이 끌렸으며, 여러 나라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장학금 내놓고 나도 재벌



◇ 지역에 헌신하는 공직자상을 실천해온 박유신주임.

“우리 주변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겐 돈이

아니라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마포구 망원1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박유신 형제(주임)는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펼쳐라”라는 선대 교훈에 따라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함께 나누며 살아오고 있다.

6·25 유공자 가족으로 편모 슬하에서 자란 박 형제는 동생과 함께 형제 공직자로 대를 이어 봉사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지난해 도화1동 사무소에 재임 당시 폐품 재활용과 분리 수거를 위해 몸소 리어카를 끌며 앞장서온 박 형제는 “품위 없이 동 직원이 쓰레기를 주우러 다닌다며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실천하는 데는 말이 필요없다”고 말하고 “노력 후에 그 수익금을 청소년 장학 기금으로 전달하는 큰 결실을 얻게 되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밝힌다.

폐품 분리 수거 초창기 실행자로 이젠 전문가가 다 됐다는 박 형제는 “반상 회보의 홍보보다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 시행 사업으로 쓰레기 감량화 운동을 비롯해 내집 앞 쓸기 등 작은 일부터 각 가정에 실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관내 불우 청소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 형제는 70년대 와우산에 남경 야학 천막 교실을 열고 지난 6여 년 간 무료 봉사, 2백여 명의 청소년을 교육해 내기도 했다.

“소외 계층 자녀들을 위한 눈요기 행사보다는 우리 모두가 늘 관심을 갖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견을 밝히는 박

형제는 지금도 영세민 가정의 불우 청소년을 매일 찾아 어려움을 나누며 격려를 해오고 있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굵은 일을 도맡아 해 오며 여러 번의 시행 착오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늘 보람을 느꼈다.”는 박 형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신뢰감을 키워갈 때 서로 친하게 밀착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이루어 가게 된다.”고 말한다.

한번 해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기필코 이루어 내는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박 형제는 자기 자신의 개발에 열중, “사람들을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평소 소신대로 방통대 농학과에 재학, 퇴직 후의 소박한 삶을 계획 중에 있다.

박 형제는 1975년에 개종했으며 신촌 와드 감독을 역임했고 현재는 서울 북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과 스테이크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상기 내용 중 일부는 1992년 7월 25일자 마포 신문에서 발췌한 것임.)

대회 주제에 첫째날은 신앙, 둘째날은 회개, 셋째날은 침례, 넷째날은 성신의 은사라는 소주제 아래 프로그램이 구성 되었는데 특히 셋째날 새벽 남한 강변에서 있었던 침례식은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영적인 감명을 주었다.

성극, 재능 발표, 경전 퀴즈 대회, 하이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대회 기간 중 많은 스테이크 역원들이 방문해서 도움과 격려를 주셨다.

(기사 제공 : 정태경 형제)

청소년 대회 소식

서울 스테이크

서울 스테이크 제19회 하계 청소년 대회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4일 동안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밤별 농장에서 개최되었다.

신앙 개조 4조인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라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를 주제로 80여 명의 청소년들과 고문들이 참석했다.

학교나 기존 시설물을 이용했던 예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직접 자신의 텐트를 치고 배수로를 파며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하는 야영 생활을 했다.



활동중인 서울 스테이크 청소년들

강서 스테이크

‘92 강서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가 나의 영혼은 의를 소망합니다’라는 주제 아래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하남 캠프장에서 8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청소년들이 보다 높은 표준을 세우고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둔 이 대회는 우정, 선행, 소망, 정의를 하루하루의 목표로 정하였으며, 많은 활동 중 우천에 실시된 극기 훈련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어려움 속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발휘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경전 퀴즈 대회에서는 구도자들도 진지하게 참석하여 기존의 청소년들이 분발의 동기를 부여받았으며 매일 아침에 가진 세미나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고무되었다.

새로이 준비된 ‘행진’이라는 프로그램은 ‘쇠막대를 잡으라’라는 구절의 비유로 복음 안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 나가며 예수님이

교회 소식 및 지역 소식

배푸신 사랑과 봉사를 일깨워 주는 참신한 활동이었다.

이 모임을 위해 30여 명의 고문과 많은 교회 역원들이 헌신적인 봉사를 해 주었다.

(기사 제공 : 김미경 자매)

부산 스테이크

지난 7월 27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하계 청소년 대회는 그 운영에 있어 스카우트 방식을 도입했다. '1일 1선'이라는 스카우트 정신을 앞세워 대회 첫날부터 내리쬐는 햇빛을 등에 업고 텐트를 치면서 협동심을 키웠으며,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직접 만든 식사를 먹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청남 청녀들의 검게 탄 얼굴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찾아 볼 수 있었으며 힘든 활동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흘리는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진귀하며 가장 향기로우며 뛰어나게 하며 순결한 것 중에서도 으뜸으로 순결한 열매"(엘마서 32:42)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기사 제공 : 김근용 형제)

대구 스테이크

92년도 대구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가 대구 근교에 있는 팔공산 도립공원 가산 산성 야영장에서 "나의 아들이,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또한 젊을



폐회 후 함께 모인 강서 스테이크 청소년들



활동 중인 부산 스테이크 청소년들

때 하나님의 계명지키기를 배우라"(엘마서 37:35)를 주제로 개최 되었다.

100여 명의 청소년과 고문이 참석한 이 모임은 배성수 스테이크장님에게 순종과 단결과 질서를 지킬 것을 선서하면서 시작되었다. '체육대회'를 통해 협동심을 배웠고, '우리들의 자랑'을 통해 재능을 뽐냈으며, '야간 경보 대회'에서는 잠을 설치 짜증을 내기보다는 도로에 누워 바라 본 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우리 모두

신나게' '경보 대회' 등의 인상적인 활동이 있었으며 마지막 '금식 간증 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순수한 간증을 서로 나눌 수 있었다.

(기사 제공 배새롬 자매)

전주 스테이크

전주 스테이크는 고등평의원이신 오양식 형제님을 대회장으로 모시고 "선한 것은 무엇이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요, 악한 것은 모두 악마에게서라"(엘마서 5:40)라는

주제 아래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 동안 임실군 관촌에서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다른 대회와는 달리 이번 대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준비했고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했다.

청소년들은 크로스컨츄리를 통해 인내심 훈련은 물론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나보다는 다른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해 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금식 간증을 통해 영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다.

대회를 통해 전주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말일성도로서의 더욱 높은 표준과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다.

(기사 제공 : 남진숙 자매)

광주 스테이크

광주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가 8월 3일부터 5일(2박3일)까지 나주 다도 남국민학교 방산 분교에서 “믿음과

표준을 굳건히 함”이라는 주제 아래 무사히 치루어졌다.

청소년 42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경전 퀴즈 예선, 본선을 통해 세미나리에서 배운 지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물섬(크로스컨츄리)을 통해서 초기 성도들의 고난을 몸으로 체험했다. 또한 이강우 대전 선교부장님의 세미나리와 가정, 학교, 교회에서의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서로 나누는 분임 토의, 단결과 화합의 한마당인 캠프 올림픽이 대회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별이 빛나는 밤에’(포크 댄스)와 간증모임은 사랑과 우정, 신앙의 한마당으로서 참여자 모두의 기억에 오래 남도록 대회를 잘 마무리 지었다.

(기사 제공 : 김정기 형제)

수원 스테이크

서울 서 스테이크에서 금년에 분리된 수원 스테이크의 첫번째 청소년 대회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4일 동안 경기도 안성군

방산1리에 소재한 농장에서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사이사 2:17)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지금까지 청소년 대회에서 해왔던 방식을 탈피해서 첫째날 3시간, 둘째날 6시간 30분, 셋째날 6시간 30분, 총 16시간을 농장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저녁에는 단막극, 무도회, 캠프 파이어 등의 활동을 하였고 아침에는 이른 시간에 기상하여 경전 읽기와 세미나리를 하였다.

처음에는 일을 해보지 않아서 두려워 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들은 땀의 값어치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서로간의 사랑과 우정도 돈독해졌다. 마지막 금식 간증 시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눈물로써 간증을 전했고 이를 통해서 어린 청소년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성장했음을 알수 있었다.

대부분 도시에서 자란 청소년들에게는 경험의 폭을 넓히고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을 수 있는 훌륭한 대회였다.

(기사 제공 : 이경숙 자매)



폐회 후 함께 모인 광주 스테이크 청소년들



활동중인 수원 스테이크 청소년들

청소년 대회, 기쁨과 봉사의 나날

이경숙 자매

(수원 스테이크 청년회장)

1992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수원 스테이크 청소년들은 경기도 안성군 방산1리에서 청소년 대회를 가졌다.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사이사서 2:17)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는 이 구절이 실제로 자신의 것이 되게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인 것 같다. 복음의 가치를 느껴 갈 시기에 서 있는 그들이지만 입시에 쫓겨 새벽부터 밤 10시, 11시 귀가에 방학마저 입시 준비를 위해 반납을 해야 한다.

이런 청소년들을 보면서 수원 스테이크 청소년 지도자들은 특별한 청소년 대회를 계획했다. 그것은 바로 농촌 봉사 활동이었다.

"하루 6시간 반의 봉사 활동이 계획된 일정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청소년 대회에 참석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대회를 다녀온 지금의 느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실재하심을 압니다."

(김형철 형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농촌에서 자라지 않은 저희가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농부들에게 오혀려 폐를 끼치게 될까 봐서요. 다행히 그분들께 폐는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서 기쁩니다."(허진 자매)

"봉사요? 이기적인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김태은 자매)

"이제까지 이웃에 대한 개념이 한정적이었는데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웃이 나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뻐요."(장운영 자매)

"봉사 활동을 통해 협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신희 자매)

이번 대회의 특징은 또 다른 곳에도 있었다. 매일 아침과 저녁

20분씩 물문경을 읽는 시간이 있었고 새벽 세미나리가 실시되었다.

올해 세미나리는 구약이지만 대회 기간의 세미나리는 특별히 나부로부터의 탈출에서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해서 정착하기까지로 범위를 정했다.

"낮에는 서부로 이동하고 밤이면 모닥불을 피우고 무도회를 가졌던 성도들처럼 저희는 낮에는 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밤이면 단막극, 무도회, 게임, 장기자랑 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허효임 자매)

"세미나리가 주는 힘은 정말 큼니다.

저는 청소년 대회를 마치고 난 후 매일 경전을 읽고 기도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실제로 있었던 분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김민수 형제)

대회 기간중 가졌던 경전 퀴즈 대회 이후 이준규 형제는 "평소에 세미나리를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앞으로는 세미나리를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결심을 강조한다.

대회에 참석했던 구도자는 모두 네 명이였다. 그 중 한 명의 형제가 침례를 받았고 세 명 모두 침례를 계획하고 복음 토론 중에 있다.

"저는 구도자이지만 청소년 대회를 통해 이 교회가 참됨을 알았고 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리 교회 회원이었던 저는 8월 15일 침례를 통해서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홍태웅 형제)

마지막 있었던 간증 모임은 너무 훌륭했다.

"참석한 모든 청년 청년들이



간증을 했는데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모임이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이 교회가 참됨을 알게 되었어요.”(송원희 자매)

“저는 간증 시간 동안 여러 청소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번 대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모임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최막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두호 형제)

청소년 대회를 마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대회에 참석했던 모든 청소년들은 각기 가슴에 주님께로 향하는 소망들을 지니고 있다.

“저희 올전 와드 청년들은 매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동의 기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맞추며, 물론정 읽기를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윤경 자매)

“저는 이번 대회 이후 힘들게 들어갔던 씨클 활동을 포기했어요. 저에게는 안식일이 더 소중하거든요.” 안식일에 씨클 활동을 해야 했던 박혜선 자매의 간증이다.

어느 청남의 어머니는 “수원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대회에 참석한 구도자들을 위해 서로 연락을 해서 금식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라고 감격해 했다.

이번 대회는 봉사가 지니는 힘이 다른 어떤 사람의 힘보다도 자신을

더 강하게 발전시킨다는 것을 알게 해 준 좋은 기회였다.

“저희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성취하고자 하는 1. 신앙과 간증을 키운다. 2. 지도력을 향상시킨다. 3.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4. 봉사 활동을 통해 기쁨을 얻는다는 네 가지 목적을 모두 성취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의 변화에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청녀 서기 안인영 자매)

수원 스테이크의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자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번 청소년 대회를 성공적인 모임으로 이끌었다.

발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특별한 모임이었다. □

미국 시애틀에 새로운 한인 지부 조직됨

지난 7월 12일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을 위한 지부가 조직되어 첫 모임을 가졌다. 아직 제대로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말로 된 찬송가를 함께 보고 부르면서 지난날의 세상적인 어려움과 신앙 생활의 불편함을 모두 잊고 기쁨에

겨워했고 모임이 끝난 후에도 헤어질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웠다.

이날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밤을 설치면서 기도를 했고 한 성도는 1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참석하기도 했다.

현재 시애틀에는 30여 가족 70여 명의 성도들의 거주하고 있다.

(기사 제공: 이범기 형제)

✧ 한국 지부 주소: 104st. Bridge port way

Tacoma WA U. S. A.

연락처: 타고마(206) 472-9407,

씨애틀(206) 874-2923.



첫번째 한인 지부 모임을 마치고 함께 모인 성도들



교회 교육 기구

신학 연구원 대학부 신입생 모집

한국 교회 교육 기구 신학
연구원에서는 1992년 2학기 대학부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992년 8월 23일 오후 5시
- 장소 : 서울 동 신학 연구원
(02-928-0033)

서울 서 신학 연구원
(02-336-1347)
부산 신학 연구원
(051-862-9415)
광주 신학 연구원
(062-224-4535)

- 자격 : 감독의 추천을 받은 회원,
비회원

- 특전 : • 모든 학비 및 교재를
교회에서 부담함
• 교회 대학 유학시 많은
도움이 됨

- 입학 및 개강식
- 서울 동 신학 연구원 :
1992. 8. 29. 오후 6:30
- 서울 서 신학 연구원 :
1992. 8. 29. 오후 7:00
- 부산 신학 연구원 :
1992. 8. 29. 오후 7:00
- 광주 신학 연구원 :
1992. 9. 9. 오후 5:00

※ 추후에도 계속 등록 및 수강 신청이
가능함.

교회 교육 기구 주최

한국 교회사 심포지움

한국 교회사 심포지움이 지난 8월
1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부산
신학 연구원에서 민혜기 지역 대표,
홍성주 부산 스테이크 부장, 안재석
부산 서 스테이크 부장 및 부산
지역 신권 지도자 다수와 한국
교회사에 남다른 흥미를 가져온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연사로는 50년대 한국 교회
현황을 서회철 교회 교육기구
대표가 60년대는 이도환 서 신학
연구원장이, 70년대는 동 신학
연구원 조만구 형제가, 성도의 벗
출판 일지를 관리 본부 김용일

형제가, 충청 지역 교회 역사를
최수영 청주 스테이크 부장이 그간
수집된 자료물을 요약
발표하였으며 발표가 끝난 후
참석한 회원들의 제언과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이 모임은
특히 초기 한국 교회의 요람이었던

부산 성도들의 교회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 동안 회원들의 열화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리되어 오지
못한 한국 교회사 집필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데저렛 지역대의 새로운 출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데저렛 스카우트 지역대(제1356대) 소속 단원 15명이 제주도

한라산에서 야영 모임을 가졌다.

제1355단에서 갓 분리해 나온 데저렛 스카우트 지역대는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분리 후 첫 지도력과 대원의 순종심이 어우러져 무사히 모임을 마칠 수 있었다.

기대에 부풀어 부산항을 출발해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했지만 기간중 날씨의 악화로 계획된 한라산 등반

일정을 취소하고 10Km의 도보 행군을 했다. 오랜 행군에 지친 가운데도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지나가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여유를 통해 '스카우트 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데저렛 스카우트 지역대의 야영을 위해 제주 지부와 서귀포 지부의 형제 자매들이 많은 도움을 야영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대대장의 주었다.

(기사 제공 : 김근용 형제)



바로 잡습니다.

1992년 8월호 교회 소식 및 지역 소식란 68쪽의 '바리톤 최현수 형제 태버나클 합창단과 공연하다' 기사 중 '12월 24일'은 '9월 24일'의 잘못이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선교사 훈련원 제142기

(1992. 7. 20-1992. 7. 30)

〈성명〉	〈출신지〉	〈선교부〉
송양영 자매	인천 S/간석 B	대전 선교부
홍발해 자매	동대문 S/춘천 W	대전 선교부
한은영 자매	서울 동 S/장위 B	대전 선교부
김수정 자매	강서 S/부천 W	대전 선교부
김태삼 장로	창주 S/상당 W	대전 선교부
김석진 장로	강서 S/영등포 B	대전 선교부
박민숙 자매	강서 S/신정 B	부산 선교부
한은주 자매	인천 S/간석 B	부산 선교부
강민정 자매	수원 S/매탄 W	부산 선교부
신동옥 장로	청주 S/삼성 W	부산 선교부
이금옥 자매	부산 S/울산 B	서울 서 선교부
박은희 자매	광주 S/목포 W	서울 서 선교부
조태성 장로	전주 S/군산 W	서울 서 선교부
곽재운 장로	광주 S/금성 B	서울 서 선교부
장옥중 장로	대구 S/수성 W	서울 서 선교부



앞줄 오른쪽부터 : 이금옥, 홍발해, 한은영, 박은희, 송양영
 중간 오른쪽부터 : 박민숙, 김수정, 강민정, 한은주
 뒷줄 오른쪽부터 : 신동옥, 김태삼, 곽재운, 정옥중, 조태성, 김석진